

결혼 초, 나는 스스로를 꽤 괜찮고 헌신적인 남편이라 여겼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들고나갈 때면 마음속으로 작은 훈장 하나를 달곤 했다. 주말에 청소기를 한 번 돌리거나 설거지통 앞에 설 때면 아내를 향해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선심 쓰듯 던졌다. 그 다정한 포장지 속에 얼마나 오만한 전제가 깔려 있는지,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도와준다’는 말은 결국 이 모든 가사 노동의 근본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며, 나는 잠시 선의를 베푸는 외부인이자 조력자일 뿐이라는 오만한 선언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풍경에서 시작되었다. 아내 역시 나와 똑같이 매일 출퇴근을 하며 사회생활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었다. 어느 늦은 밤,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아내의 곁에 수북하게 쌓인 마른빨래를 보았다. 내가 밖에서 주어진 ‘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안락한 휴식을 누리는 동안, 아내는 집 안팎을 오가며 ‘우리의 일’을 홀로 감당하며 퇴근 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욕실의 샴푸가 떨어지면 채워 놓는 일, 수건을 가지런히 개어 수납장에 넣는 일, 냉장고 속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기억해 내는 일. 겉으로는 티도 나지 않는 그 수많은 이름 없는 그림자 노동들이 투명한 유령처럼 아내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똑똑히 보았다. 아내의 희생이라는 비탈길 위에 나의 평온한 일상이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음 날부터 언어를 바꾸기로 했다. “도와줄게”라는 알팍한 말을 의식적으로 삼켰다. 대신 “내 빨래는 내가 갈게”,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 당번이야”라고 말했다. 그것은 대단한 선언이나 거창한 평등의 실천이 아니라, 나와 아내가 밭 딛고 사는 이 집의 당연한 지분과 책임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며칠 뒤, 나는 내 체형에 맞는 넉넉하고 짙은 색의 앞치마를 하나 샀다. 늘 주방 한편에 외롭게 걸려 있던 아내의 낡은 앞치마 곁에 내 앞치마를 나란히 걸어두었다. 부엌 벽에 두 개의 앞치마가 나란히 걸린 풍경은 우리 집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하고 단단한 증표가 되었다.

진정한 평등은 광장의 거창한 구호나 제도의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발판 삼아 나의 편안함을 당연하게 누리지 않는 것. 상대방의 시간과 노동을 내 시간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 삶의 짐작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기꺼이 나누어 짊어지는 일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나란히 주방에 섰다. 아내는 찌개가 끓는 냄비를 살피고, 나는 도마 위에서 조금은 서툰 솜씨로 양파를 썬다. 누구도 서로에게 고맙다며 과장된 인사를 건네거나 생색을 내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몫을 다하며 담담하게 밥상을 차려낼 뿐이다.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졌던 식탁의 수평이 마침내 견고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하다. 이 평범하고 따듯한 일상의 수평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고쳐 써 내려가야 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이야기일 것이다.